



김용원 / 본회 부회장  
대우전자(주) 사장

## 환경의 도전과 인간의 응전

지난해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밀어 넣었던 대내외적 여건들이 별로 호전되지 못한 채 올해도 저물어간다.

경제국인 대만, 싱가포르의 2~3배에 달하는 과도한 임금상승률로 인해 그간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던 가격 경쟁력은 이미 힘을 잃었고, 일본의 동남아시아 생산기지화에 따른 값싼 동남아시아 제품의 대량 출시로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C-TV, VCR, 전자렌지 등 수출주력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무역장벽은 좀처럼 낮아질 줄 모르고,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 기피로 기술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유가인상 세계경기의 전반적 침체라는 악재가 덧붙여지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1%이상이 더 떨어진 6~7%에 머물 전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둔화세가 차츰 장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간 눈부신 외형성장의 그늘에 가리워져 왔던 우리 경제의 좀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그 결과 기술개발 투자와 품질향상과 같은 중요 현안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점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차라리 다행이 아닐

까 싶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결국은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덮고 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으로서도 현재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류문명의 역사를 환경의 도전과 이에 대한 인간의 응전이라는 도식으로 파악했던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도전이 응전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면 그 문명은 몰락할 수 밖에 없지만 반대로 도전이 전혀 없을 때에도 문명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차츰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고 한다. 결국 적당한 자극이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과정을 통해 문명은 성장하고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환경속에 있는 기업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환경요인들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1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금년 추정치 8.8%를 크게 밑도는 7.3%,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올해 17억달러

보다 확대된 25억~30억달러에 달하는 저성장국면을 나타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은의 결론은 7%내의 경제성장은 우리 경제규모에 비추어 결코 침체국면이 아니며 경상수지 적자폭도 2천 100억달러의 GNP규모에 견준다면 우려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환경도 기업의 의욕을 위축시키고 좌절시키는 '강력한 도전'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성장, 발전하기 위한 '적당한 자극'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경영환경을 적당한 자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와 생산성향상 및 품질향상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기존의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사고와 이에 수반되는 치밀한 대책 및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대우전자의 경우 관리혁명의 일환인 TMI(Total Management Innovation)운동 추진으로 사고의 일대 전환을 꾀하고 하이터치 제품 개발과 안방배달시스템 등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